

魏晉南北朝 시기의 文味論*

李 致 洙**

<目 次>

I. 들어가는 말	III. 魏晉南北朝 文味論의 內容
II. 魏晉南北朝 文味論의 背景과 展開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중국의 고전문학비평은 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다양한 문학론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味」자를 사용하여 詩文을 품평하는 논의, 즉 「味論」이다. 이 「味論」은 중국 고유의 飲食文化에서 비롯되어, 魏晉南北朝 이후 清代에 이르기까지 점차 중국 문학비평론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전체 味論의 역사에서 볼 때, 魏晉南北朝 시기는 味論이 바야흐로 형성된 시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시기의 味論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할 때, 종래의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해오는 「詩味論」이라는 말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¹⁾ 그것은 이 용어가 詩를 대상으로 삼은 것

* 이 논문은 2010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詩」에서 이루어진 「味論」을 지칭하여 「詩味理論」이라 이름을 붙이거나(馬悅寧의 <論詩味理論的源起與發展>《蘭州大學學報》27:2, 1999), 또는 「詩味說」이라 일컫는 경우도 있지만(苗欣의 <論詩味說>《語文學刊》4, 2004), 그 보다는 「詩味論」이라 부르는 경우가 좀 더 많다.(楊子江의 <“詩味論”的蘊涵與嬗變>《北方論叢》2, 2001)

이어서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전체 味論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특히 魏晉南北朝 시기의 味論을 논할 적에는 적합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代替하는 말로 「文味論」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피고자 한다. 또, 지금까지 이 시기의 味論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詩味論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그것도 주로 특정 비평가만을 다루고, 특히 鍾嶸의 《詩品》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문학비평사에서 그와 쌍벽을 이루는 劉勰의 《文心雕龍》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 연구와 평가 작업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고, 兩者의 견해를 함께 다루며 특색을 드러내 보여주기 보다는 각기 개별적으로만 소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시기의 文味論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종합적 논의는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시기의 문인들은 「味」자를 사용하여 문학과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들을 하였는가? 또 이 시기에 이런 文味論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몇 가지 점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文味論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그 특색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魏晉南北朝 文味論의 背景과 展開

고대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음식문화가 발달하였는데, 「味」는 본래 구체적인 음식물이 사람의 입과 혀에 주는 감각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뒤에는 점차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계가 밀접한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과 정신 영역에도 사용되어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특질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우선 先秦 시기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左傳》 昭公 12年條에서 晏子は 주방의 요리사가 맛을 봐가면서 조미료를 적절하게 넣어 맛있는 고깃국을 만드는 것을 예로 들면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이같이 조화로워야함을 강조하며 「味」로 정치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음악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서로 잘 배합하고 조절함을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晏子は 「味」로 君臣 關係의 일을 비유하고 「味」를 음악과

연계시켰다. 또 「味」자를 사용하여 사상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테면 《老子》에서는 道의 본체를 설명하면서 「味」라는 말이 사용되어, “道를 입으로 말하면 담백하여 아무 맛도 없다.(道之出口, 淡乎其無味.)”²⁾ (제35장)고 하였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하고, 일삼는 것이 없는 것을 일삼고, 맛이 없는 것을 맛본다.(爲無爲, 事無事, 味無味.)”³⁾ (제63장)고 하였다. 후대의 典籍에 나타나는 「味」자의 용법은 크게 보아 名詞와 動詞라는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전자는 「맛」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대상에 깃들여 있는 어떤 특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고, 후자는 「맛보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음미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위에서 보듯, 《老子》에는 이미 이런 두 가지 용법이 다 쓰이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漢代에 들어서도 先秦 시기를 이어 「味」자를 사용하여 사상이나 음악 등을 나타내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변화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淮南子·說林訓》의 “지극한 맛은 입에 흡족하지 않고, 지극한 말은 文飾을 하지 않으며, 지극한 즐거움은 웃지 않고 지극한 음은 부르짖지 않는다.(至味不慊, 至言不文, 至樂不笑, 至音不呌.)”에 나오는 「至味」는 사상과 관련된 표현이며, 老子思想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王褒는 <洞簫賦>에서 통소의 슬픈 가락은 사람을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데 참으로 진한 맛이 있다고 표현하였는데,⁴⁾ 이 시기부터 「味」로 美感을 나타내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어서 魏晉南北朝에 들어와서는 음식문화 및 이전부터 전해오는 「味論」文化의 영향으로, 이제 「味」자를 사용하여 음악과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일을 나타내게 되었다.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음식문화가 매우 발달하였는데 그 배경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이 시기에 음식 관련 저술이

2) 陳鼓應 註譯, 《老子註譯及評介》, 中華書局, 2009, 196쪽.

3) 같은 책, 293쪽.

4) 嚴可均 校輯, 《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全漢文》(아래에서는 朝代만 표시함.), 中文出版社, 1975, 권42, 354쪽. “哀悄悄之可懷兮, 良醞醞而有味.”

대량으로 나타나고 음식을 연구하는 학문이 유행함에 따라 烹飪 기술이 발전했다. 여기에 북방과 남방, 胡族과 漢族의 음식문화가 교류, 융합하게 되면서 음식문화의 발전을 이루었다. 또 위진남북조 시기에 들어서 儒敎가 쇠미하면서 전통적인 禮敎가 더 이상 사람들을 구속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은 美食을 추구하고 즐겼다. 특히, 문벌 귀족과 지주들 사이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풍조가 크게 성행하면서 烹飪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은 배경 아래에서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음식문화가 크게 발달하게 되었고, 이 영향으로 味論이 사상, 예술, 문학 등 여러 방면으로 확대되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예를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思想

嵇康은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味」자를 사용하였는데, “정신과 육체의 큰 조화를 지극한 즐거움으로 삼으면 세상의 영화는 돌아볼만한 것이 되지 않고, 고요하고 담백함을 지극한 맛으로 삼으면 술이나 여색은 흥미할 게 못됩니다.(以大和爲至樂, 則榮華不足顧也, 以恬澹爲至味, 則酒色不足欽也.)”⁵⁾ (<答向子期難養生論>)라고 하여 養生의 이치를 논하였다.

② 音樂

阮籍은 <樂論>에서 「味」자를 사용하여 음악을 논하면서 “천지가 쉽고 간단하므로 雅樂은 번잡하지 않고, 道德은 平淡하기 때문에 宮, 商, 角, 徵, 羽의 五聲은 맛이 없네.(乾坤易簡, 故雅樂不煩, 道德平淡, 故五聲無味.)”⁶⁾라고 하였다.

③ 書藝

南朝 梁의 袁昂은 《古今書評》에서 殷鈞의 글씨를 평하면서 高句麗의 使臣처럼 호방하고 기상은 대단하나 韻致는 끝내 정채로운 맛이 결핍되어

5) 같은 책, 《全三國文》 권48, 1327쪽.

6) 陳伯君 校注, 《阮籍集校注》, 中華書局, 2004, 81쪽.

있다고 하였다.⁷⁾ 袁昂은 「味」를 審美 표준으로 삼아 殷鈞의 글씨를 평하였다.

④ 繪畫

東晉과 劉宋 시기의 宗炳은 이름난 山水畫 畫家인데, 畫論을 담은 <畫山水序>에서, “聖人是 도를 머금고 만물에 응하며, 賢者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象을 음미한다.(聖人含道應物, 賢者澄懷味象.)”⁸⁾고 말했다. 이 「象」은 자연물이며 그 안에 「道」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味」는 단순한 자연물상의 외관적인 형태를 본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道를 음미하면서 기쁨을 획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⑤ 文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味」로 음식을 비롯하여 음악, 철학사상, 글씨, 그림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행하는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배경 아래에서 문학에서도 자연스럽게 「味」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魏晉南北朝 文味論의 형성 배경으로는 이 시기에 발달한 飲食文化 외에도 宴飮文學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음식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음식과 관련된 글이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연회 모임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학, 즉 宴飮文學이 성행하였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漢魏六朝 시기의 宴飮文學으로 현존하는 작품은 詩歌가 1,229수, 賦가 134편, 文章이 88편, 그리고 소설 중에서 宴飮과 관련된 描寫가 26종의 소설 중에 320곳이나 된다.⁹⁾ 이런 작품은 연회를 갖는 시기와 장소, 참가한 사람에 대해 기술하면서, 동시에 食品의 형상이나 맛에 대한 표현도 담고 있다.¹⁰⁾ 그러므로

7) 嚴可均, 앞의 책, 《全梁文》 권48, 3229쪽. “殷鈞書, 如高麗使人, 抗浪甚有意氣, 滋韻終不精味.”
 8) 같은 책, 《全宋文》 권20, 2545쪽.
 9) 李華, <漢魏六朝宴飮文學研究>,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11, 13쪽.
 10) 이를테면 “잉어회와 알배 새우 죽, 자라구이와 곰발바닥구이가 있네.(膾鯉膾胎鰕, 炮鱉炙熊烤)”(曹植, <名都篇>)와 같이 美食을 열거하기도 하고, 혹은 “처

飲食文化와 宴飲文學이 발달하였던 시기를 살았던 魏晉南北朝의 문인들이 「味」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민감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이 시기 文味論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문화 현상 외에 이 시기에 文味論이 등장하여 성행한 데에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들어 일어난 文學에 대한 觀念의 변화이니, 문인들이 文學에 대해 그 존재와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고 自覺하게 되면서 문학 나름의 특질, 즉 「味」를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제 문학은 더 이상 이전처럼 政治, 敎化, 倫理만을 강조하지 않고 문학이 사람에게 주는 快感과 美感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이것을 「味」자를 통해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는 「飲食의 味」를 가리키던 것이 점차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音樂의 味」, 「哲學의 味」로 사용되다가, 魏晉南北朝에 들어서는 「文學의 味」로 더욱 확대가 된 것이다. 이 시기의 文味 품평은 詩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여러 장르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전하는 자료를 보면 오히려 다른 장르의 사례가 시기적으로 詩보다 먼저 보인다. 장르별로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賦

建安 시기의 卞蘭은 <贊述太子賦并上賦表>에서 曹丕가 지은 《典論》과 여러 賦와 頌을 높이 평가하여 “뛰어난 구절은 빛나고, 깊은 생각은 샘 솟듯 하며, 화려한 문사는 떠다니는 구름처럼 많으니, 귀로 들으면 맛있는 음식도 잊어버릴 정도이고, 받들어 읽으면 싫증남이 없습니다.(逸句爛然, 沉思泉涌, 華藻雲浮, 聽之忘味, 奉讀無倦.)”¹¹⁾라고 말했다. 孔子가 齊나라에서 韶樂을 듣고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는 典故를 사용하면서 조비의 글을 듣고 읽으면서 갖는 즐거움을 형용하였다. 西晉 초의 夏侯湛은 <張平子碑>에서 漢代의 張衡의 賦를 평하면서 그의 <二京賦>와 <南都賦>

음에는 쓴 맛 나더니, 끝에 가서는 참으로 달도다.(闕初作苦, 終然允甘)”(劉楨, <瓜賦>)처럼 美味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11) 嚴可均, 앞의 책, 《全三國文》 권30, 1222쪽.

는 《詩經》의 <雅>나 <頌>과도 高下를 겨룰만한데 그것은 뛰어난 맛이 있어서 그런 것이리라 칭송했다.¹²⁾ 그리고 東晉의 桓玄은 <與袁宜都書論嘯>에서 袁崧의 賦를 읽으며 읊조리면 소리에 淸味が 있다고 평했다.¹³⁾

2) 散文

西晉의 陸雲은 <與兄平原書>에서 陸機의 表에 대해 글에 깊은 정과 원대한 뜻이 담겨 있어 깊이 맛볼 만 하다고 높이 평했다.¹⁴⁾ 南朝 宋의 范曄은 <獄中與諸甥姪書以自序>에서 일찍이 자신이 《後漢書》를 편찬하면서 여러 傳論에 精深한 뜻을 담았는데, 분별하고 판정하는 의미를 띠고 있으므로 간명하게 요점을 적었노라고 회상하였다.¹⁵⁾

3) 詩

「味」자로 詩를 평한 사람으로는 鍾嶸이 있는데, 《詩品》에서 시인과 작품을 평한 예가 다섯 곳에 보인다. 이를테면 永嘉 시기의 시를 비판하여 “담담하니 맛이 적다.(淡乎寡味)”고 하였다.

4) 詩文

詩文을 함께 논하는 글에서 「味」라는 말을 사용한 예는 晉의 陸機가 지은 <文賦>에 보이는데, 글에 깊은 맛이 결여된 것을 창작에서 피해야 하는 병폐의 하나로 들었다.¹⁶⁾ 문학비평에 「味」자가 등장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는 볼 수 없다. 詩文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味」자를 다양하게 사용한 사람은 劉勰으로, 《文心雕龍》에는

12) 같은 책, 《全晉文》 권69, 1858쪽. “二京南都, 所以贊美畿輦者, 與雅頌爭流, 英英乎其有味與.”

13) 같은 책, 《全晉文》 권119, 2142쪽. “讀卿歌賦序詠, 音聲皆有淸味.”

14) 같은 책, 《全晉文》 권102, 2045쪽. “兄前表甚有深情遠旨, 可耽味高文也.”

15) 같은 책, 《全宋文》 권15, 25192쪽. “吾雜傳論, 皆有精意深旨, 既有裁味, 故約其詞句.”

16) 같은 책, 《全晉文》 권97, 2013쪽. “闕大羹之遺味.”

「味」자가 18곳에서 보이고 그중 15곳이 文味와 관련이 있다. 顏之推도 《顏氏家訓》에서 詩와 文章에 걸쳐서 「味」자를 사용하였는데, “(劉孝綽은) 늘 謝朓 詩를 책상 위에 두고 걸핏하면 읊고 음미하였다.(常以謝詩置几案間, 動靜輒諷味.)”(〈文章〉)라고 하였고, 일반 문장도 「滋味」를 느낄 수 있으면 즐거운 일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味」자를 사용하여 품평하는 것이 꽤 보편화되었다. 문학에만 한정되지 않고 음악, 미술, 서예 등 여러 분야에 두루 걸치고 있다. 그러므로 문학의 「味」를 이야기할 때는 「味論」이라고 泛稱하는 것보다 「文味論」이라고 하여야 비로소 「味」와 문학과와의 관계가 더 분명해 질 수 있으며, 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르에도 쓰였으므로 「文味論」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魏晉南北朝 시기의 文味論은 그 발전 상황을 시기별로 나누면 三國시대에서 晉, 宋代까지는 「味」자를 사용하여 詩文을 논평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齊梁 이후는 본격적으로 文味論이 전개된 시기이다. 이때의 味論은 劉勰과 鍾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魏晉南北朝 文味論의 內容

魏晉南北朝 시기의 문인들이 「味」자를 사용하여 詩文을 論評하고 鑑賞한 자료는 현재 전하는 것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다. 대부분 짝막한 몇 마디나 몇 구절로 되어 있으며, 味論을 論題로 내걸고 그 내용을 장편의 글을 통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논한 경우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면 이 시기의 문인들이 「文味」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살필 수 있다.

1. 「文味」의 性格

魏晉南北朝에 이르러 문인들은 「味」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味」를 문학에 존재하는 특질로 보았고 어떤 작품에 대해 감상하는 것을 「맛본다」고 표현하였다. 「味」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그러면 魏晉南北朝 시기의 문인들이 생각하는 「味」는 과연 어떤 「味」인가?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餘味」라는 말을 두 차례 사용하였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입에서 느끼는 맛」이 있듯이 詩文을 閱讀, 감상한 이후에 「남아도는 맛」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悠長한 맛」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隱秀>편에 “깊이가 있는 글은 함축적이면서 문채가 있고, 남아도는 맛[餘味]이 극진하게 내포되어 있다.(深文隱蔚, 餘味曲包.)”라고 한 말이 있고, <宗經>편에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옛적의 經書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남아도는 맛[餘味]은 날로 새롭다.(是以往者雖舊, 餘味日新.)”라고 한 예가 있다. 劉勰은 「味」 한 글자만 쓴 경우도 있지만, 「餘味」나 「遺味」, 「精味」, 「辭味」, 「義味」처럼 「味」 앞에 다른 글자를 붙이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味」의 성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魏晉南北朝는 전체 文味論 역사에서 보면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味」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여 그 특색을 細分하여 살피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辭味」라는 말은 詩나 문장에서 최소의 단위인 「辭」의 「味」 문체에까지 세심하게 생각이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2. 「文味」와 체제

「味」는 문학의 모든 장르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 장르에만 있거나, 혹은 어떤 장르에 특히 더 많을까?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劉勰은 《文心雕龍》이 문학 전반을 대상으로 하듯이 「味」의 경우도 어느 특정 장르, 이를테면 후세 자료에 많이 보이는 것처럼 詩에만 제한하지 않고 詩를 비롯하여 다른 장르의 글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宗經>편에서 儒家의 經書에 대해 “맛이 있다.”고 평하면서 宗經思想의 일단을 보여주었고, 史書의 경우에도 班固의 《漢書》를 평해 “맛이 있다.”(<史傳>)고 하였다. 그리고 辭賦에 관해서는 揚雄, 詩의 경우에는 張衡을 들면서 評語에서 모두 「味」자를 사용하였다. 이 점에서 보면, 詩의 경우만을 언급한 鍾嶸의 《詩品》보다는 劉勰은 詩文을 모두 포함하여 거론한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味論에 있어서 劉勰과 鍾嶸은 똑같이 詩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즉, 鍾嶸은 시에서는 5언시가 4언시보다 「味」의 표현에서 더 뛰어나다고 보았다.

무릇 4언시는 글은 간략하되 뜻은 넓지만, 《詩經》과 《楚辭》를 취하여 본받아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글은 번다하면서도 뜻이 적은 것에 고심하여 세상에는 익히는 사람이 드물다. 5언시는 시문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 각종 작품 중에서 맛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호에 잘 맞는다고 하겠다. 어찌 事情을 드러내고 形象을 만들어내며, 情感을 다 펼쳐내고 物象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상세하고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¹⁷⁾ (《詩品·序》)

여기서 鍾嶸은 5언시가 4언시보다 한 자가 더 많음으로 해서 표현상 장점이 있기 때문에 5언시가 「滋味」의 표현에 있어서 4언시보다 더 뛰어나다고 평했다. 그래서 그는 《詩品》에서 5언시만을 대상으로 하여 품평하였다. 그러나 劉勰은 이와 다르다. 우선 그는 <明詩>편에서 《詩經》의 4언시를 正體로 여겼으며,¹⁸⁾ 시에서 「味」를 나타난 예로 張衡의 4언시를 높이 평가하여, “張衡의 <怨詩>는 맑고 전아하여 음미할 만하며, <仙詩>는

17) 周振甫, 《詩品譯注》, 江蘇教育出版社, 2006, 7-8쪽. “夫四言文約意廣, 取效風騷, 便可多得. 每苦文繁而意少, 故世罕習焉. 五言居文詞之要, 是衆作之有滋味者也, 故云會於流俗. 豈不以指事造形, 窮情寫物, 最爲詳切者耶.”

18) 王運熙·周鋒, 《文心雕龍譯注》, 上海古籍出版社, 2000, 47쪽. “若夫四言正體, 則雅潤爲本; 五言流調, 則清麗居宗.”

歌>는 우아하면서 새로운 소리를 갖추고 있다.(至於張衡怨篇, 清典可味; 仙詩緩歌, 雅有新聲.)”라고 말했다. 劉勰은 시의 역사에 대해 논술하는 경우에도 4언시와 5언시를 모두 다루며 각기 훌륭한 시인들이 있다고 평했다.¹⁹⁾ 劉勰과 鍾嶸의 문학론의 異同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논의가 있어 왔는데, 「詩의 味」를 논함에 있어서도 두 사람의 입장에는 同과 異가 공존한다. 즉, 시에서 「味」를 중시한 점은 두 사람 모두 같으나 그것을 宗經思想과 연계시키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입장이 다르고, 「味論」에 있어서 4언시와 5언시에 대한 평가 또한 서로 다르다.

3. 「文味」와 作家

劉勰은 「文味」를 작가의 개성과 관련지어 생각했다. <體性>편에서는 揚雄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揚雄은 성격이 차분하므로 글의 내용이 함축적이고 맛이 깊다.²⁰⁾

揚雄은 漢賦 4大家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그의 辭賦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 劉勰은 揚雄의 賦가 글의 내용이 함축적이고 맛이 깊은 특색을 갖는 요인을 揚雄의 차분한 성격과 결부시켰다. 班固의 《漢書·揚雄傳》에도 揚雄이 조용한 성격에 깊이 사색하기를 좋아하였으며 富貴에 욕심이 없이 오로지 辭賦 창작을 좋아하였다는 기술이 있다.²¹⁾ 이처럼 劉勰은 작가의 사상 감정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주의하여, 작가의 개성이 다르면 창작에도 영향을 미쳐 풍격도 다르게 형성된다고 보

19) 같은 책, 47쪽. “華實異用, 惟才所安. 故平子得其雅, 叔夜含其潤, 茂先凝其清, 景陽振其麗. 兼善則子建仲宣, 偏美則太冲公幹.”

20) 같은 책, 255쪽. “子雲沈寂, 故志隱而味深.”

21) “雄……默而好深湛之思, 清靜亡爲, 少奢欲, 不汲汲於富貴, 不戚戚於貧賤……故嘗好辭賦.”

았다. 그래서 <體性>편에는 典雅, 遠奧, 精約, 顯附, 繁縟, 壯麗, 神奇, 輕靡의 여덟 종류의 풍격을 들었다.

4. 「文味」의 創作

작품 중에 「文味」를 갖추도록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魏晉南北朝의 文味論이 이전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이 시기의 문인들이 「文味」의 창출에 대해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1) 창작 원리론

① 情感

劉勰은 작품에 「味」를 갖기 위해서 감정의 표현을 중시했다. <情采>편에서 “사상과 감정이 드러나야 비로소 문체가 풍성해질 수 있다.(心術旣形, 英華乃瞻.)”고 하였고, “문체가 많다 해도 감정이 결여되어 있으면 맛을 보아도 반드시 싫증내게 된다.(繁采寡情, 味之必厭.)”고 지적했다. 鍾嶸이 永嘉 시기의 玄言詩를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 “철학적 이치가 文辭를 지나쳐서 답답하니 맛이 적다.(理過其辭, 淡乎寡味.)”(《詩品·序》)고 평했다. 玄言詩는 단조롭고 질박하기가 <道德論>과 같으므로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정의 流露는 보기 힘들기 마련이다. 劉勰은 作詩에서 「吟咏情性」을 주장하였고 이 점은 鍾嶸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 사람 모두 情의 표현을 요구하며 文采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였다. 두 사람의 이런 말에는 당시 文壇의 修飾 중심의 경향을 비판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다. 劉勰은 <情采>편에서 情感을 중시하고 강조하였는데, 이런 입장에서 “글을 짓기 위해 情을 造作하는(爲文而造情)” 현상을 비판하였다. 劉勰은 나아가 文質도 결국은 情感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²²⁾

22) 王運熙·周鋒, 앞의 책, 284쪽. <情采>: “研味孝老, 則知文質附乎性情.”

이들 외에도, 陸雲이 陸機의 表를 높이 평가한 것도 그의 글에 깊은 情과 원대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³⁾ 王徽는 작품 중에 「怨思」가 구성지게 나타나 있지 않으면 「味」가 없다고 하여,²⁴⁾ 감정 중에서도 특히 悲怨의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며 「味」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魏晉南北朝 시기의 문인들은 「情」이야말로 「味」가 생겨나는 근원이자 기초라고 보았다. 그래서 「情」이 없으면 「味」도 없게 된다고 여겼다.

② 文과 質, 風力과 丹采

劉勰은 문학 작품이란 유기적인 통일체이므로 文과 質이 서로 잘 융합하여야 「味」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여겼다. <史傳>편에서 班固의 《漢書》중의 <志>와 <贊>과 <序>에 「남아도는 맛[遺味]」이 있는 것은 바로 「雅正하고 文과 質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²⁵⁾ 일찍이 孔子는 《論語》에서 「文質彬彬」을 말한 적이 있는데,²⁶⁾ 劉勰도 文과 質을 둘 다 중시하는 儒家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鍾嶸의 경우, 그가 《詩品》에서 「味」자를 사용한 評語를 보면 그가 文采를 상당히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上品의 張協에 대해 그의 시가 “辭采가 풍부하고, 音韻이 곱고 낭랑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감상하게 해도 감칠 맛이 있어 싫증을 느끼지 않게 한다.(詞采葱蒨, 音韻鏗鏘, 使人味之麴麴不倦.)”라고 평하고, 또 中品の 應璩에 대해 “濟濟今日所와 같은 시의 경우는 華美하여 읊조리며 맛볼만하다.(至於濟濟今日所, 華靡可諷味焉.)”고 평했다. 이러한 것을 보면, 鍾嶸이 辭采와 聲韻을 모두 중시하였

23) 陸雲, <與兄平原書>: “兄前表甚有深情遠旨可耽味.”(嚴可均, 앞의 책, 《全晉文》 권102, 2045쪽.)

24) <與從弟僧綽書>: “文詞不怨思抑揚, 則流澹無味.”(같은 책, 《全宋文》 권19, 2537쪽.)

25) 王運熙·周鋒, 앞의 책, 131쪽. “及班固述漢……其十志該富, 贊序弘麗, 儒雅彬彬, 信有遺味.”

26) 《論語·雍也》: “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鍾嶸도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風力과 丹采의 결합을 중요하게 여겨 《詩品·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風力으로 작품의 근본을 삼고 丹采로 작품을 潤飾하여서, 감상하는 이들로 하여금 끝없이 맛보도록 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움직이도록 하면, 이것이 시에서 지극히 좋은 경지이다.²⁷⁾

風力은 진실되고 충실한 내용에서 나오는 감동력으로 質에 속하고 丹采는 華美한 文辭로 文에 속하니, 鍾嶸이 말하는 風力과 丹采의 결합은 劉勰이 말하는 文과 質의 결합이기도 한다. 사실은 劉勰도 <風骨>편에서 風骨과 丹采의 결합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보면 劉勰이나 鍾嶸이나 서로 주장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또 蕭繹은 문장이 너무 화려하면 體裁 格式에 맞지 않게 되고, 또 너무 질박하기만 하면 담담하니 맛이 없게 된다고 하여 兩者를 적절하게 兼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⁸⁾

情感의 표출과 文質의 兼備를 중시하는 것 외에도 劉勰은 또 「味」의 창작과 관련하여 창작의 자세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總術>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둑을 잘 두는 것처럼 짓는 글은 창작 방법상 변치않는 기본 원리를 파악해 두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준비하며, 사상과 감정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다가 적절한 때를 잘 따르니, 글쓰기에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기본 원리를 극히 잘 운용하고, 시기를 교묘하게 포착하면, 작품의 의미가 뛰어 오르듯 융솟음치고, 문사의 기세가 무리지어 모이게 된다.²⁹⁾

27) 周振甫, 앞의 책, 8쪽. “幹之以風力, 潤之以丹采, 使味之者無極, 聞之者動心, 是詩之至也.”

28) 蕭繹, <內典碑銘集林序>: “存華則失體, 從實則無味.”(嚴可均, 앞의 책, 《全梁文》 권17, 3053쪽.)

29) 王運熙·周鋒, 앞의 책, 391쪽. “若夫善奕之文, 則術有恒數, 按部整伍, 以待情會; 因時順機, 動不失正. 數逢其極, 機入其巧, 則義味騰躍而生, 辭氣叢雜而至.”

劉勰은 여기서 사상과 감정이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문자로 자연스럽게 표현해내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구체적 作法

魏晉南北朝 시기의 문인들은 이상과 같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실제 창작에 있어서 구체적인 각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文과 質을 동시에 다 중시하는 입장에서 「味」를 제대로 나타내기 위한 作詩法에 관한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분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① 章法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를 빌려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이런 것을 잘 나타내고 전달하는 것이다. 이럴 적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章法, 즉 전체 詩文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래서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條理가 일관되며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劉勰은 이것을 비유하길, 이를테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옷을 만들 때 바느질을 촘촘히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附會>편에서 바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했다.

글 전체를 안배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감정과 생각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라네. 시작부터 끝까지를 강구하여, 나뭇가지가 뻗어나고 잎이 잘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 뜻의 묘미가 서로 잘 결합되어야 떨어져 있는 실마리가 자연스레 연결된다.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작자의 마음의 소리도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³⁰⁾

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과 생각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처음 시작서

30) 같은 책, 385쪽. “篇統間關, 情數稠疊. 原始要終, 疏條布葉. 道味相附, 懸緒自接. 如樂之和, 心聲克協.”

부터 끝날 때까지를 잘 안배하여 전체 주제가 首尾一貫해야 하며 각 부분의 배치도 적절해야 한다. 부분과 부분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道味」가 잘 표현되며 전체적인 조화 속에 작자의 생각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협은 글을 배울 때는 마땅히 글의 체제—주요 구성 요소와 조직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만약에 이런 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味」의 표현은 어떻게 될까? 劉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문장의 실마리를 통괄하는 중심을 잃으면 文辭의 맛이 반드시 어지러워지고, 내용의 맥락이 통하지 않으면 半身不隨의 문장이 될 것이다. 문장의 조리를 깊이 잘 알게 된 뒤라야 음절과 문체가 자연스레 합쳐지니, 마치 아교가 나무를 붙이고 들 속에 옥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³¹⁾ (<附會>)

결국 훌륭한 문장을 지으려면 글 전체가 유기적으로 잘 구성이 되고 條理가 整然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② 聲律

聲律은 문학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로, 劉勰도 이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능이 있는 어린이가 글 짓는 것을 배울 때에는 마땅히 문장의 體制를 바르게 해야 하니, 사상과 감정을 문장의 정신으로 삼고, 사실과 뜻을 문장의 骨格으로 삼으며, 辭句의 文采를 문장의 皮부로 삼고, 韻律을 문장의 聲氣로 삼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색채를 폼평하고 악기를 연주하듯이 하며, 좋은 것은 뽑고 나쁜 것을 버리면서 적절하게 처리하니, 이것이 작품을 구상할 때의 보편적인 원칙이다.³²⁾ (<附會>)

31) 같은 책, 382쪽. “若統緒失宗, 辭味必亂, 義脈不流, 則偏枯文體. 夫能懸識腠理, 然後節文自會, 如膠之粘木, 石之合玉矣.”

32) 같은 책, 379-380쪽. “夫才童學文, 宜正體製, 必以情志爲神明, 事義爲骨髓, 辭采爲肌膚, 宮商爲聲氣; 然後品藻玄黃, 擡振金玉, 獻可替否, 以裁厥中, 斯綴思

그래서 劉勰은 작품 창작에 있어서 성조의 조화에 관심을 갖고 音律의 조화와 통일을 강조했다. 平聲과 仄聲, 雙聲과 疊韻 같은 것을 적절하게 배합하지 못하면 읽을 적에 순조롭고 유창하지 못하니 이런 병폐는 비유하자면 작가가 말을 더듬는 병을 앓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³³⁾ 이런 까닭에 문장의 맛[滋味]도 이 聲律의 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聲韻이 아름답고 추함은 읊조릴 때 나타나니, 작품의 韻味는 字句의 안배에서 흘러나오고, 氣力은 字音의 조화와 押韻에 모두 나타난다.³⁴⁾ (<聲律>)

桓玄은 <與袁宜都書論嘯>에서 “소리에 모두 清味가 있다.(音聲皆有清味)”라고 평했는데³⁵⁾, 이것은 「味」가 聲韻上의 아름다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鍾嶸이 《詩品》에서 실제로 「味」자를 사용하여 시인을 품평한 예는 많지 않은데 그 중의 한 사람인 張協을 上品에 넣은 것은 바로 그의 시가 「音韻이 곱고 낭랑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⁶⁾

③ 對偶

對偶은 많은 작가들이 좋은 표현을 얻고자 신경을 쓰는 대상이다. 특히 唯美主義가 성행한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주요 作法의 하나가 되었다. 이 對偶도 당연히 「味」와 관련이 있으니, 劉勰은 對偶를 잘 만들면 「精味」를 產生한다고 보았다.

사물의 형체는 반드시 쌍을 이루고, 文辭도 왕왕 對偶가 이루어진다. 왼쪽으로 들고 오른쪽으로 끝면서 대칭을 이루면, 정교한 韻味가 둘 다 갖춰

之恒數也.”

33) 같은 책, 300쪽. <聲律>: “迓其際會, 則往蹇來連, 其爲疾病, 亦文家之吃也.”

34) 같은 책, 301쪽. “是以聲畫妍蚩, 寄在吟詠, 滋味流於下句, 氣力窮於和韻.”

35) 嚴可均, 앞의 책, 《全晉文》 권119, 2142쪽.

36) 周振甫, 앞의 책, 54쪽. “音韻鏗鏘, 使人味之麴麴不倦.”

진다. 나란히 핀 꽃은 빛나고, 깨끗한 거울은 모습을 담아낸다. 옥 같이 윤기 있고 두 줄기 빛이 흐르니, 짝 이루어 매달린 저 佩玉과도 같네.³⁷⁾
(<麗辭>)

詩文의 창작에서 對偶는 글자수가 같고 구조면에서도 같은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어, 對偶를 잘 운용하면 독자로 하여금 視覺的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정교하고 정제된 맛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

④ 文辭

「味」를 증시하기 시작한 魏晉南北朝의 문인들은 실제 창작에서 어떻게 해야 작품에 「味」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劉勰은 「말은 간결하나 뜻이 풍부함」에 의한 「餘味」의 창출을 제시하였다. 비록 옛적의 經書가 오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남아도는 맛[餘味]이 날로 새로운 것은 말은 간결하나 뜻이 풍부하고, 서술한 사례는 비근하나 비유하는 뜻은 심원하기 때문이며,³⁸⁾ “景物이 비록 많다하더라도 文辭의 운용은 간결함을 중시하며, 韻味가 표현하게 가볍게 일어나고, 情趣는 넘쳐흐르며 더욱 새롭도록 해야 한다.(物色雖繁, 而析辭尚簡; 使味飄飄而輕舉, 情曄曄而更新.)”고 강조했다. 劉勰은 文學의 「味」의 形成과 관련하여 <隱秀>편에서 「隱」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는데, “「隱」이란 글의 표면적인 의미 밖의 함축된 것이며(隱也者, 文外之重旨者也.)” “「隱」은 多重의 言外의 뜻을 가짐으로 해서 工巧롭고(隱以復意爲工)” “깊이가 있는 글은 함축적이면서[隱] 문체가 있고, 남아도는 맛[餘味]이 곡진하게 내포되어 있다.(深文隱蔚, 餘味曲包.)”라고 말했다. 간략한 文辭로 풍부한 사상 감정을 표현하여, 말은 간결하나 뜻이 풍부하여야 문학작품은 언제 읽어도 새로운 맛을 줄 수 있다. 劉勰이 제시한 「隱」이란 개념은 이후의

37) 王運熙·周鋒, 앞의 책, 321쪽. “體植必兩, 辭動有配. 左提右挈, 精味兼載. 炳燦聯華, 鏡靜含態. 玉潤雙流, 如彼珩珮.”

38) 같은 책, 19쪽. <宗經>: “至根柢槃深, 枝葉峻茂, 辭約而旨豐, 事近而喻遠. 是以往者雖舊, 餘味日新.”

文味論에 큰 영향을 미쳤다.

鍾嶸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興」의 표현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에 정의를 내리기를, “글이 이미 다 끝난 뒤에도 뜻이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興」이다.(文已盡而意有餘, 興也.)”(《詩品·序》)라고 하였다. 이 「興」은 수사 방법의 하나로 시에서 모든 것을 곧바로 다 드러내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자체가 바로 작품 중의 「味」를 擔保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면 鍾嶸이 창작에서 「興」의 수법만을 사용하는 폐단을 警戒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사용할수록 좋다고 권유하였을 것이다. 鍾嶸은 수사법으로 賦比興을 들면서 어느 한쪽만 사용하였을 때의 폐단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에 오로지 「比」나 「興」만 사용하면 작품의 뜻이 지나치게 깊어지는 폐단이 생기고, 뜻이 지나치게 깊어지면 文辭가 제대로 잘 통하지 못한다. 또 만약에 오직 「賦」體만을 사용하면 작품의 뜻이 들뜨는 폐단이 생기고, 뜻이 들뜨게 되면 文辭가 산만해지는데, 놀면서 옮겨 다니듯이 하여 문사가 한 곳에 머무름이 없으니, 어수선하고 흩어지는 폐단이 생기게 된다.³⁹⁾ (《詩品·序》)

그래서 鍾嶸은 훌륭한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興」 외에도 「比」와 「賦」를 중시하며,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외에, 王微는 작품 속에는 하나의 뜻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결국 含蓄적이고 풍부한 표현을 강조한 것이다.⁴⁰⁾ 요컨대 魏晉南北朝의 문인들은 말은 간단하나 뜻은 풍부하여 깊은 맛을 나타내는 것을 중시했다. 鍾嶸은 4언시보다는 5언시가 작품 중에 맛[滋味]이 더 많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는 요인에 대해

39) 周振甫, 앞의 책, 8쪽. “若專用比興, 患在意深, 意深則詞蹟. 若但用賦體, 患在意浮, 意浮則文散. 嬉成流移, 文無止泊, 有蕪漫之累矣.”

40) 王微, <與從弟僧綽書>: “一往視之, 如似多意.”(嚴可均, 앞의 책, 《全宋文》 권 19, 2537쪽.)

“어찌 事情을 드러내고 形象을 만들어내며, 情感을 다 펼쳐내고 物象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상세하고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豈不以指事造形, 窮情寫物, 最爲詳切者耶.)”(《詩品·序》)라고 하였다. 鍾嶸의 이 말은 4언시와 優劣을 따졌을 때의 5언시의 표현상의 장점을 말한 것이지, 이것이 바로 작품 중에 맛이 생기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감정 표현을 절실하게 하고, 사물 묘사를 상세하게 잘 처리하는 것과 작품에 「滋味」를 갖추는 문제의 상관 관계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5. 「文味」의 鑑賞

詩文의 「맛」과 「美感」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味」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味」자의 動詞 용법인 「맛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유희은 詩文의 감상과 관련하여 <總術>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눈으로 보면 비단에 그려진 그림 같고, 귀로 들으면 관현악 음악 같으며, 입으로 맛을 보면 달콤하고, 몸에 지니면 향기가 난다. 문학 창작의 효과는 이렇게 되어야 지극하다 하겠다.⁴¹⁾

그러면 어떻게 맛을 보아야 하는가? 劉勰은 <辨騷>편에서 「諷味」라는 말을 하였다.

揚雄도 읊조리며 음미해 보고는[諷味] 그 체제가 《詩經》의 <雅>와 같다고 말했다.⁴²⁾

41) 王運熙·周鋒, 앞의 책, 391쪽. “視之則錦繪, 聽之則絲簧, 味之則甘腴, 佩之則芬芳. 斷章之功, 於斯盛矣.”

42) 같은 책, 33쪽. “揚雄諷味, 亦言體同詩雅.”

「諷味」는 「誦讀」, 「吟誦」을 하면서 「吟味」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揚雄은 <離騷>를 단지 눈으로 보면서 뜻의 解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읊조리면서 음미를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離騷>의 특색과 맛을 파악하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鍾嶸도 中品の 應璩에 대해 “「濟濟今日所」와 같은 시의 경우는 華美하여 읊조리며 맛볼만하다.(至於濟濟今日所, 華靡可諷味焉.)”고 평하여 「諷味」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顏之推의 《顏氏家訓》에도 이 말이 보인다.⁴³⁾

劉勰의 <情采>편에는 또 「研味」라는 말이 보이는데, “《孝經》과 《老子》의 말을 깊이 음미해 보면[研味], 文采롭거나 質朴함은 사람의 性情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研味孝老, 則知文質附乎性情.)”라고 하였다. 「研味」는 詩文의 뜻을 깊이 파고들어 자세하게 살피면서 음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세밀하게 읽어야 맛을 얻을 수 있고, 시간을 들여 천천히 오래 읽어야 하며, 작품을 반복해서 읽어야 그 맛을 얻을 수 있다.

이외에, 陸雲은 深情과 遠旨가 잘 나타나 있는 陸機의 작품을 「耽味」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耽味」는 즐기면서 맛을 본다는 의미이니 美感을 즐긴다는 審美的인 행동을 잘 보여준다.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先秦 이후 날로 다양해지면서 계속 이어진 「味論」문화의 바탕 위에, 이 시기의 飲食文化와 宴飮文學의 발달, 그리고 문학에 대한 새로운 自覺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味」자를 빌려 음식, 사상, 음악, 글씨, 그림, 그리고 문학 등에 대해 논의하고 품평하고 감상하며 審美 활동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이 시기의 味論은 이전에 주로 철학과 음악 등에서 사용되던 「味」자가 이제 문학 안에 들어와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詩文

43) 顏之推, 《顏氏家訓·文章》, 世界書局, 1955, 22쪽. “孝元諷味, 以爲不可復得.”

에 걸쳐 두루 사용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언급도 「詩味論」보다는 「文味論」이라 부르는 것이 전체를 개괄하는 장점이 있다. 이 시기의 문인들은 문학에서 「味」의 존재를 파악하고 중시했으며, 동시에 「味」를 얻는 방법에도 눈을 돌렸는데, 이것도 이 시기 文味論의 특색이다.

이 시기의 문학 관련 味論은 대부분이 짤막한 몇 마디나 몇 구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직은 비교적 큰 편폭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文味 관련 주장을 전개한 경우는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전하는 자료를 통해서 이 시기 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유추함으로써, 文味論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이해를 갖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다. 魏晉南北朝 시기의 문학 관련 味論은 그 내용이 文味の 성격에서부터 시작하여 文味와 체재, 文味와 작가의 개성과의 관계, 文味를 얻기 위한 실제 창작 방법, 그리고 文味の 감상 등, 비교적 여러 면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劉勰의 《文心雕龍》에 보이는데, 劉勰의 味論은 그의 중요 文學觀, 이를테면 宗經思想을 비롯하여 情采論, 文質論 등의 핵심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章法, 字法, 對偶, 聲律 등 구체적인 작법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魏晉南北朝 시기에 劉勰만큼 이렇게 문학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 범위가 넓고 내용도 다양하고 세밀하게 味論을 다룬 사람이 없다. 劉勰의 味論은 또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唐代에 들어서도 「味」를 논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였는데, 王昌齡은 시를 지을 때 「味」의 표현과 관련하여 景物과 理致, 「景」과 「意」가 서로 잘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고,⁴⁴⁾ 皎然은 情感과 興趣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韻律과 文采를 고루 갖추어야 시에 깊은 맛이 생긴다고 보았다.⁴⁵⁾ 이러한 것은 모두 劉勰의 뒤를 이어 문학 작품에서 「味」

44) 《詩格·十七勢》：“理入景勢者，詩不可一向把理，皆須入景，語始清味。……景入理勢者，詩一向言意，則不清及無味，一向言景，亦無味。事須景與意相兼始好。”(張伯偉, 《全唐五代詩格彙考》(南京: 鳳凰出版社, 2005.1), 157-158쪽.)

45) 《詩議》：“夫詩工創心，以情爲地，以興爲經，然後清音韻其風律，麗句曾其文采。如楊林積翠之下，翹楚幽花，時時問發，乃知斯文，味益深矣。”(같은 책, 209쪽.)

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그 창작 방법상의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晚唐의 司空圖가 주장한 「韻外之致」와 「味外之旨」說도 劉勰의 餘味說의 바탕 위에서 제기되었다. 宋代에 들어서도 劉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를테면 魏泰와 姜夔는 시에서 「餘味」를 중시하였으며, 張戒의 意味說은 劉勰의 <隱秀>편의 味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元代的 范梈, 明代的 謝榛, 清代的 趙翼 등은 모두 劉勰의 餘味說을 계승하였다. 물론 鍾嶸도 魏晉南北朝 이후, 특히 詩의 味論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으니, 당대의 司空圖, 송대의 嚴羽, 청대의 袁枚와 王士禎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魏晉南北朝 시기의 味論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詩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鍾嶸을 더 부각시키며, 劉勰에 대해서는 평가가 전면적이지 못한 편이다.

魏晉南北朝 시기의 文味論은 劉勰과 鍾嶸을 대표로 삼을 수 있는데, 당시의 文壇에 존재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적에 이들의 견해는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 이들은 文과 質을 모두 중시하여 文采만 중시하는 문단의 폐단에 일침을 가했으며, 情感을 중시하고 강조함으로써 글을 짓기 위해 감정을 조작하는 현상을 비판했다.

文味論은 중국 고전문학비평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다. 전체 文味論의 역사에서 볼 적에 魏晉南北朝는 문인들이 문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자각하며 「味」자를 사용하여 문학의 특질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두루 살펴보기 시작한 시기이다. 본 연구는 「文味論」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기 문학의 味論에 대해 그 모습을 전반적으로 개관해 보고자 하였다.

< 參考文獻 >

(1) 論著類

- 王運熙·楊明, 《中國文學批評通史(魏晉南北朝卷)》, 上海古籍出版社, 2007.
 歸青·曹旭, 《中國詩學史(魏晉南北朝卷)》, 鷺江出版社, 2002.

- 郁沅·張明高,《魏晉南北朝文論選》,人民文學出版社,1999.
- 嚴可均 校輯,《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中文出版社,1975.
- 張伯偉,《全唐五代詩格彙考》,鳳凰出版社,2005.
- 王運熙·周鋒,《文心雕龍譯注》,上海古籍出版社,2000.
- 陶禮天,《藝味說》,百花洲文藝出版社,2005.
- 陳應鸞,《詩味論》,巴蜀書社,1996.
- 楊明,《文賦詩品譯注》,上海古籍出版社,1999.
- 周振甫,《詩品譯注》,江蘇教育出版社,2006.
- 陳鼓應,《老子註譯及評介》,中華書局,2009.
- 陳伯君,《阮籍集校注》,中華書局,2004.
- 顏之推,《顏氏家訓》,世界書局,1955.
- 劉勰 著,崔信浩 譯,《文心雕龍》,玄岩社,1975.
- 鍾嶸 지음, 이철리 역주,《역주 시품》, 창비, 2007.

(2) 論文類

- 羅培坤,〈論「味」的演化〉,《荊州師專學報(社會科學版)》4, 1996.
- 鄧新華,〈“詩味”說的形成和發展〉,《三峽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3, 2004.
- 李娜,〈《文心雕龍》“味”論研究〉,《當代小說》9, 2009.
- 茅春柳,〈論鍾嶸《詩品》的“滋味”說及其對後世文論的影響〉,《中國古代文學研究》1, 2008.
- 黃鋼,〈劉勰以味論詩的理論構架〉,《新疆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4:3, 1996.
- 韋春喜,〈《文心雕龍》“味”論探析〉,《文藝理論與批評》5, 2007.
- 楊星映,〈劉勰論“味”蠡測〉,《西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6, 2002.
- 李華,〈漢魏六朝宴飲文學研究〉(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11.
- 李致洙,〈宋代 詩味論의 배경과 특색 연구〉,《中國語文學》55, 2010.

<中文提要>

中國古典文學批評至魏晉南北朝就開始展開多樣多彩的文學論，其中有一個引起我們注目的就是用味字來品評詩文的談論，即味論。這味論是以古代的飲食文化為基礎，從魏晉南北朝到清代逐漸成為中國古代文論的主要內容之一。在整個味論的歷史上，本文要探討的魏晉南北朝即屬於形成期。要論此時期的味論時，使用從來研究家一般多用的‘詩味論’這個術語，還不如代之以‘文味論’更妥當，因為後者能包括詩與賦、文章等整個文體，更能概括此時期的味論。

自從先秦時期就已經以味喻音樂，以味論思想，經過漢代至魏晉南北朝，以味論思想、論音樂、論書法、論繪畫、論文學成為普遍的文化現象，尤其由於此時飲食文化與宴飲文學的發達，以及文人們對文學的存在與審美特質的自覺，味論開始進入文學領域，就產生文味論。梳理這個時期的有關文味的談論，其主要內容大抵可分為如下幾點，即文味的性格，文味與體裁，文味與作家，文味的創作，文味的品賞。魏晉南北朝的文人重視文味，將它視為文學的審美特質，探討文味與體裁、文味與作家個性之關係。對於文味之創作，魏晉南北朝時期文人大都重視情感的表出，強調文質并重，還把文味論落實到具體的作法之中，注意文味與章法、聲律、對偶、文辭的關係。對於文味的品賞，就提起諷味、研味、耽味。

如上面所述，魏晉南北朝時期的文味論呈現出與以前相比不同的新的相貌與成就。此時期的文味論主要以劉勰與鍾嶸為代表，劉勰所論比鍾嶸更廣泛更細密。從整個文味論的歷史上言，魏晉南北朝的文味論承前啓後，繼承先秦與漢代以味喻音樂、以味論思想，給與後代的文味論以很大的影響。

주제어 : 魏晉南北朝、味、文味論、飲食文化、劉勰、鍾嶸

